『五大眞言』 千手陀羅尼 신앙의 배경과 42手 圖像

옥 나 영 *

1. 머리말
2. 千手陀羅尼 신앙의 전래와 전승
3. 조선 시대 『五大眞言』 수록 42手 圖像의 특징
4. 맺음말

초록: 본 연구는 『五大眞言』에 수록된 다라니 신앙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 고대, 고려를 거치는 동안 확산, 변모한 양상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규장각 소장 『오대진언』인 철암판과 쌍계사판을 중심으로 『오대진언』에서 수록한 다라니들 중 천수관음신앙과 연관 있는 사십이수진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검토하였다. 특히 사십이수진언의 경우 수인의 도상을 함께 기재하고 있는데, 이 도상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았다.

7세기 이후 『千手經』류 경전들이 한역되면서 고대 신라에서도 관음신앙의 전래와 함께 천수관음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 고려 시대에도 『천수경』류 경전 간행이 지속되고, 관련한 신앙행이 이어졌는데, 현세구복적 성격은 더욱 강조되었다. 천수관음의 다라니를 매개로 한 신앙 활동은 왕실부터 일반 관료와 여성, 승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계층에서 영위하였다.

이러한 천수관음과 다라니에 대한 신앙행의 전통은 조선 시대에도 이어져 『오대진언』을 구성하는 여러 다라니와 함께 수록되었다. 『오대진언』에서는 다라니만이 아니라 다라니의 독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한글과 한자로 음역 표기를 하였다. 이때 사용한 한자 음역 표기는 고려시대에 요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경향이 이어지고 있어서 다라니 신앙의 전통이 계승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 사십이수진언은 각각의 진언마다 수인의 도상이 함께 수록하였다. 도상을 삽입된 것은 『천수경』에서 다라니 독송뿐만 아니라 각각의 印을 결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대진언』은 조선 후기에도 간행되었는데, 이 중 사십이수진언의 도상에 대한 수요도 지속되었다. 『畵千手』에 별도로 사십이수진언의 도상이 수록되어 간행되고 있는 것에서 그 양상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오대진언』의 간행은 이전 시기 지속되었던 다라니를 매개로 한 신앙의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박사후 국내연수).

역사성을 배경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한자와 한글 음역 표기를 병행함으로써 다라니 독송을 통한 신앙 활동을 보다 다양한 신분이 공유할 수 있게 하였을 것이다. 한편 사십이수 수인 도상은 천수관음과 다라니에 대한 다채로운 신앙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핵심어 : 오대진언, 천수천안관음세음보살, 사십이수진언, 신묘장구대다라니, 사십이수 수인, 다라니 신앙, 밀교

1. 머리말

『五大眞言』은 成宗(재위 1469-1495)의 어머니인 仁粹大妃(1437-1504)가 1485년(성종16)에 직접 발원하여 간행한 불교 서적이다. 여기에는 사십이수진언, 신묘장구대다라니, 관자재보살근본다라니, 수구즉득다라니, 대불정다라니, 불정존승다라니 등 총 6편의 진언이 실려 있으나 『오대진언』이라 하였다.[1] 그런데 각각의 성격이 다른 5개의 진언들이 하나의 진언집에 묶여서 간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해결할 직접적인 단서는 『오대진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오대진언』은 조선 시대에 가장 많이 신앙시되고 독송되었던 다라니 다섯 종류를 한 데 묶어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석하고[2] 특히 관음신앙을 선양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간하였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3]

그런데 『오대진언』 수록 다라니들은 모두 고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 된 이

1) '五大眞言'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세 번째인 관세음보살근본다라니를 제외한 5편을 가리킨다고 파악하거나(김무봉, 2011 「『영험약초언해(靈驗略抄諺解)』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57; 우진웅, 2011 『韓國 密敎經典의 版畵本에 관한 硏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희숙, 2004 「朝鮮後期 佛書刊行 硏究: 眞言集과 佛敎儀式集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사십이수진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하나의 다라니로 묶어 보기도 한다(김수아, 2016 「왕실발원판 『오대진언집』과 관음신앙의 형성」, 『문학과 종교』 21-1; 金芳蔚, 2016 『朝鮮時代 觀音信仰 關聯 佛書 刊行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 남희숙, 위의 논문; 禹秦雄, 위의 논문.

3) 김수아, 앞의 논문.

래 고려에 들어서도 사람들의 불교 신앙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었던 것들이다. 따라서 조선 시대에 이 다라니들이 가장 많이 신앙될 수 있었던 배경을 조선 시대에 국한시켜 이해하기보다는, 조선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다라니들의 전래와 수용 및 활용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이러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즉 『오대진언』에 수록된 각각의 진언 다라니들의 소의경전의 성격과 해당 경전의 우리나라 수용 양상 및 전승 양상을 살펴 본 후, 각 다라니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본다면 조선 시대에까지 개별 다라니들이 사람들의 신앙 활동의 매개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와 이들 다라니들이 하나의 진언집에 묶어 간행될 수 있었던 단서들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오대진언』에서 수록한 다라니들 중 천수관음신앙과 연관 있는 사십이수진언, 신묘장구대다라니에 대한 해당 사항을 검토해보고자 한다.[4] 특히 사십이수진언의 경우에는 도상을 함께 기재하고 있는데, 이 도상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다.

2. 千手陀羅尼 신앙의 전래와 전승

『오대진언』에 수록된 다라니들을 순서대로 배열해보면, 앞에서부터 사십이수진언,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이어진다. 이 2가지 다라니들은 천수관음과 관련된 경전에[5] 수록된 다라니라는 공통점이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千手經』류 경전들이

4) 『五大眞言』의 여러 판본의 현황에 대해서는 남희숙, 앞의 논문; 우진웅, 앞의 논문 참조. 본고에서는 규장각 소장 철암판(청구번호 一簑古貴 294.33-B871d, 표제명 대타경)과 쌍계사판(청구번호 奎6749)을 검토하였다. 이 2개의 자료는 이른바 왕실발원판의 후쇄본으로 생각되는데, 모본이 되는 왕실발원판은 상원사에서 소장하고 있다(1485년). 왕실발원판을 모본으로 한 다른 자료로는 철굴판이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청구번호 古1788-20-1). 한편 1484년 발간된 원통암판은 기림사에서 소장하고 있다. 42手 手印의 도상과 관련해서는 규장각 소장 『觀世音菩薩靈驗略抄』(청구번호 古1730-41)와 『畵千手』(청구번호 古1730-51)를 함께 검토하였다.

한역된 시기는 7세기 전후한 때이며, 8세기경에는 金剛智(671-741), 不空(705-774)과 같은 밀교승에 의해 이역본이 한역되었다.[6] 최초 역본으로 智通이 번역한『天眼千臂觀世音菩薩陀羅尼神呪經』에는 경전 번역의 유래를 밝히는 서문을 기술하고 있는데 "唐 貞觀(627-649) 연간에 북천축승이「齎千臂千眼陀羅尼梵本」을 받들어 진상했다"고 하고 "太宗이 大總持寺의 법사 지통으로 하여금 이 경전을 번역케 하였다"고 하였다.[7]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천수경』류 경전이 정관년간에 전래되었고, 650년경 지통에 의해서『천안천비관세음보살다라니신주경』이 한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8] 이후 菩提流志(?~727), 伽梵達摩, 불공, 금강지 등에 의해 천수관음과 관련한 경전들이 다수 한역되었는데, 그 목록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천수경』류 경전의 한역 현황

	경명	한역자	한역 연도
①	『千眼千臂觀世音菩薩陀羅尼神呪經』2卷	唐 智通譯	627-649
②	『千眼千臂觀世音菩薩陀羅尼神呪經』2卷	唐 智通譯	627-649
③	『千手千眼觀世音菩薩治病合藥經』1卷	唐 伽梵達摩	650-661
④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1卷	唐 伽梵達摩	650-661
⑤	『千手千眼觀世音菩薩姥陀羅尼身經』1卷	唐 菩提流志	709
⑥	『金剛頂瑜伽千手千眼觀自在菩薩修行儀軌經』2卷	唐 不空譯	723
⑦	『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悲心陀羅尼』1卷	唐 不空譯	723
⑧	『大悲心陀羅尼修行念誦略儀』1卷	唐 不空譯	723
⑨	『攝無礙大悲心大陀羅尼經計一法中出無量義南方滿願補陀落海會五部諸尊等弘誓力方位及威儀形色執持三摩耶幟幟曼荼羅儀軌』1卷	唐 不空譯	
⑩	『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呪本』1卷	唐 金剛智譯	731-736
⑪	『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身呪本』1卷	唐 金剛智譯	731-736
⑫	『千光眼觀自在菩薩祕密法經』1卷	唐 三昧蘇嚩羅	
⑬	『千手觀音造次第法儀軌』1卷	唐 善無畏	

5) 이하 본고에서는『千手經』류 경전이라고 칭한다.

6) 김동림, 2019「한국불교 주력신앙의 수용사 고찰-대비주(大悲呪)의 주송을 중심으로-」,『동아시아불교문화』38집, 180면.

7)『千眼千臂觀世音菩薩陀羅尼神呪經』2卷 T1057a;『千眼千臂觀世音菩薩陀羅尼神呪經』2卷 唐 智通譯 T1057b.

8) 正覺, 1996『천수경 연구』, 운주사.

위 〈표 1〉은 주요한 『천수경』류 경전들을 한역 시기와 한역자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가범달마와 불공 역본이 유행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9] 두 역본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①, ②지통 역의 『千眼千臂觀世音菩薩陀羅尼神呪經』과 ⑤보리유지 역의 『千手千眼觀世音菩薩姥陀羅尼身經』인데, 이 둘 사이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①, ②, ⑤와 ④가범달마 역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을 비교해보면,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이 과거에 天光王靜住 여래가 설했던 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를 듣고 千手千眼을 갖추게 되었고, 初地에 머물러 있다가 바로 제8지로 뛰어 올랐다는 내용이나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知一切法'로 시작하는 20偈는 지통과 보리류지 역본에는 없지만 가범달마 역본에서는 추가된 내용이다. 이후 내용은 4가지 역본 모두 큰 틀에서 천수다라니의 공덕을 설하는 것은 같으나 세세한 차이가 있다.

⑧『大悲心陀羅尼修行念誦略儀』·⑥『金剛頂瑜伽千手千眼觀自在菩薩修行儀軌經』은 불공이 한역한 것으로, 전자는 대비심다라니의 염송 시 지켜야 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이며 후자는 『金剛頂經』에 의거한 제자와 아사리의 수행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불공 역본 중 대중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였고 『오대진언』에서도 의거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⑦『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悲心陀羅尼』이다. 이 경은 지통, 보리류지, 가범달마 역본과 구성이 다르다. 지통, 보리류지, 가범달마 역본은 세존과 여러 보살이 모여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곳에서 관세음보살이 다라니와 그 다라니의 지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덕을 설한다. 하지만 불공역본에서는 배경 설명 없이 바로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知一切法'로 시작하는 20偈로 시작해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송한 직후 40개의 진언과 手印의 그림을 나열한다. 그런데 세 가지 역본은 모두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송한 이후에도 이 다라니를 둘러싼 여러 공덕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 속에서 40개의 진언의 명칭이 설해지며 수인의 도상은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구성상 차이가 분명하다. 다만 가범달마 역본은 불

9) 김호성, 2006 『천수경의 새로운 연구』, 民族社, 28면.

공 역본에 수록된 내용과는 차이가 없어서 가범달마와 불공역본은 같은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금강지가 한역한 ⑩『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呪本』과 ⑪『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身呪本』은 실담자로 다라니만을 수록한 것인데, 이처럼 각각 다라니만을 수록한 경전류도 한역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다라니에 대한 수요가 있었음을 반증한다. 그리고 ⑫『千光眼觀自在菩薩祕密法經』은 25명의 보살이 각각 40手를 지니고 있음을 말하고, 40개의 진언과 각각에 따른 수인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나열하였다.[10] 선무외가 한역한 ⑬『千手觀音造次第法儀軌』는 천수관음상의 조성 과정을 설하고 있는데, 28개의 형상의 왼 면 오른 면 손의 모양과 지물을 설명한 후, 각각에 해당하는 密語를 덧붙인 것이다.

한편,『천수경』류의 경전이 한역된 이후에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저작이 나타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唐의 窺基(632-682)는『千手經疏』 3권을 저술하였다.[11] 뿐만 아니라 일본의 空海(774-835)는『千手觀音行法次第』란 저술을 통해 밀교 의궤에 기초한 천수관음행법을 발전시켰다. 宋의 四明知禮(960-1028)는『千手眼大悲心呪行法』을 찬술하였는데, 가범달마와 불공 역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12]

이와 같이『천수경』이 한역되고 여기에 수록된 大悲呪[13]가 유행함에 따라 천수관음상 조성도 나타난다. 경전에서도 단을 만들고 천수관음상을 조성할 것을 말하고 있고[14] 천수관음상의 형상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였다.[15] 뿐만 아니라 ⑬

---

10)『千光眼觀自在菩薩祕密法經』 T65, 121c08-124c28.

11) 김동림, 앞의 논문, 185면; 정각, 앞의 책, 68면에서 재인용.

12) 陳明華, 2010「高麗時代 觀音信仰과 佛畫의 圖像 硏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8면.

13) 천수경류 경전에서는 다라니의 명칭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지통 역에서는 千眼千臂觀世音菩薩大神呪라 하였고, 보리류지 역에서는 千手千眼姥陀羅尼大身呪, 가범달마역에서는 大悲心陁羅尼呪·廣大圓滿無导大悲心大陁羅尼神妙章句, 불공역에서는 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神妙章句陀羅尼라고 하였다. 특정한 경우가 아닌 경우 본고에서는 大悲呪라고 통칭하겠다.

14)『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 T1069, 109c18-109c19, “갖가지 재난이 일어날 때엔, 千眼大悲心像 조성하여”

15)『千眼千臂觀世音菩薩陀羅尼神呪經』 T1057, 87b01, “다음으로 설할 것은 像을 그리는 법

『천수관음조차제법의궤』와 같이 천수관음상의 조성 과정을 의식화한 의궤도 한역된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1) 천수다라니의 신라 전래와 신앙 활동의 양상

중국에서 관음신앙이 흥륭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관음신앙이 이내 전해졌을 것인데, 백제와 신라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16] 그러나 천수관음 신앙의 전래는 신라의 사례만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신라와 관련된 기록을 중심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17]

천수다라니의 독송 사실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은 義相(625-702)의 찬술이라고 전하는 『白花道場發願文』이다. 의상은 당나라에서 돌아와 낙산 해변의 굴 안에서 7일간 齋戒하고 관세음보살 진신을 친견하고자 원하였다.[18] 『백화도량발원문』에서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대비주를 외고 보살의 이름을 불러 다 같이 圓通三昧의 성품에 들기를 발원하고 있다. 이 글은 의상의 직접 찬술이 아니지만, 의상의 사상을 계승한 신라화엄의 영향을 받은 저술로써, 고려를 거치는 동안 이 글이 의상의 진찬이라고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신라에서 천수관음 신앙의 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19]

그런데 신라 때 천수관음과 관련한 경전이 전래되고 신앙시 되었던 것은 분명

이다."

16) 백제 관음신앙에 대해서는 僧肇,『法華經傳記』6; 김영태, 1979「백제의 관음사상(百濟의 觀音思想)」,『마한백제문화』3; 鄭炳三, 1982「統一新羅 觀音信仰」,『韓國史論』8.

17) 신라의 관음신앙의 사상적 역사적 흐름 전반에 대해서는 김영태, 1976「新羅의 觀音信仰」,『佛敎學報』13; 鄭炳三, 위의 논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編輯, 1997『韓國觀音信仰』, 서울: 한국언론자료간행회 참조. 관음보살상 조성에 대해서는 박선영, 1995『삼국시대 관음보살상의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희정, 2010「통일신라 관음보살상 연구 시론」,『인문논총』63 참조.

18)『三國遺事』卷第三, 塔像 第四, 洛山 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19) 정병삼, 1998『의상화엄사상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정병삼, 2011「全文『白花道場發願文略解』와 체원의 관음신앙」,『佛敎硏究』4, 109면.『백화도량발원문』의 의상의 진찬 여부에는 이견이 있다. 의상이 귀국길에『천수경』류 경전을 가지고 왔으며, 이후『投師禮』,『백화도량발원문』을 찬술했다고 파악하기도 한다(정각, 앞의 책, 38-39면).

하다.[20]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 전래된 경전 목록을 정리한『諸阿闍梨眞言密敎部類總錄』에 따르면 지통, 가범달마 역본이 전래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⑥과 같은 불공 역본도 전래되었다. 뿐만 아니라『梵字千手千眼眞言』과 같이 범어만으로 작성되거나 또는『梵漢兩字千手陀羅尼』와 같이 범어와 한문으로 쓰인 다라니만을 수록한 것들도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21] 일본에도 이렇게 다양한『천수경』류 경전들이 귀국하는 승려들을 통해 일본에 전해지고 있다면, 비슷한 양상이 신라에서도 나타났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三國遺事』에 따르면 오대산에 머물던 寶川이 千手呪를 읽고 밤에는『관음경』의 禮懺을 할 것을 유언하고 있다.[22] 경덕왕대(742-765)에는 希明이라는 여인이 눈 먼 아들로 하여금 분황사의 천수대비상 벽화에 빌게 하자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기록이 전한다.[23] 또 嚴莊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역할을 한 廣德의 부인을 관음 19응신의 하나라고 하였는데,[24] 어떤 형상이었을지 분명하지 않지만 천수관음일 가능성이 있다.[25]

이와 같이 신라에도 불교 신앙의 확산 현상과 함께 다양한 천수관음 관련 경전들이 전래되고, 신앙되기 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천수관음 신앙활동의 다양한 측면, 즉 기도와 독송 예참 및 천수관음화 제작

---

20) 천수관음신앙과 관련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으로는 慈藏의 부모가 天部觀音에게 빌어 스님을 낳았다고 한 것이다(『三國遺事』卷第四, 義解 第五慈藏定律). 이 천부관음에 대해서 천수관음이라고 보기도 한다(鄭泰爀, 1988『正統佛敎』, 經書院). 그러나 자장의 출생 연도를 대략 610년 전후라고 볼 때(南東信, 1992「慈藏의 佛敎思想과 佛敎治國策」,『韓國史硏究』76) 자장이 태어나기 전에 신라에 천수관음 신앙이 도입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자장의 부모는 현세이익적 바람을 들어준다는 관음의 형상을 천개나 만들어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축원했을 가능성이 높다(鄭炳三, 1982 앞의 논문, 29-30면). 한편,『三國遺事』栢栗寺에서 백률사에 大悲像이 조성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대비상이 11면관음인지 천수관음일지는 단정지을 수 없다.

21)『諸阿闍梨眞言密敎部類總錄』T55, 1123a06-1123a28.

22)『三國遺事』卷第三, 塔像 第四, 臺山 五萬眞身.

23)『三國遺事』卷第三, 塔像 第四, 芬皇寺 千手大悲 盲兒得眼.

24)『三國遺事』卷第五, 感通 第七, 其婦乃芬皇寺之婢 蓋十九應身之一.

25) 이숙희, 2009『통일신라시대 밀교계 불교조각 연구』, 학연문화사, 31면.

등의 방법을 통해 수행을 하고,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다양한 신앙 모습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라에서의 천수관음 신앙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고려에서의 천수다라니 신앙의 전개와 확산

고려 시대에도 『천수경』류 경전 간행이 지속되고, 관련한 신앙행이 이어졌다. 고려 시대 『천수경』은 극락왕생의 기원 및 환란과 원적의 침입, 전염병을 소멸시켜주는 공덕이 기대되고 있어서 현세구복적 성격이 강하다.[26] 먼저 경전 간행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자. 고려대장목록에는 다수의 『천수경』류 경전이 포함되어 있다.[27] 남선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초조대장경중에는 보리유지 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모다라니신경』과 가범달마 역의 『불설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이 있다.[28] 또 『密敎大藏』 중 호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卷61은 13세기 후반(1259-1264년경)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대신주본」,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심다라니주본」 1권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진언의 표기에서 '진언 명칭-실담자-한자 음역'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29] 조선시대 간행되는 『오대진언』이나 다른 진언집에서의 형식과 유사하여 주목된다.

이 밖에 11세기에 사경된 백지묵서 『大悲心陀羅尼啓請』에서는 다라니 독송을 통해 불심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하였다.[30] 『大悲心陀羅尼啓帖』은[31] 忠烈王 19년

---

26) 김수연, 2011 「高麗時代 密敎史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4면.

27) 고려대장목록: k-292, K-293, K-294, K-1269, K-1270, K-1311.

28) 임기영, 2014 「고려시대 밀교 문헌의 간행 및 특징」, 『書誌學硏究』 58, 409면, 〈표 1〉 참조.

29) 박광헌, 2014 「고려본 밀교재장 권61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硏究』 58, 455면.

30) 임기영, 앞의 논문, 424-425, 427면.

3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청구번호: 一簑 294.36 D13t.
남권희, 2015 「한국의 陀羅尼 간행과 유통에 대한 서지적 연구」,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8, 156면. 『大悲心陀羅尼啓帖』은 경전 앞머리에 大悲心陀羅尼啓請이 있고 뒤 이어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신묘장구다라니가 쓰여 있다. 다라니 다음에는 가범달마 역의 『대비심다라니경』에서 설하는 다라니 염송의 공덕을 발췌해 서술하고 있

(1293) 一然의 문도인 善隣이 인흥사에서 간행하였는데, 국왕의 장수와 국토의 강녕이라는 현실적 기원과 함께 불법이 퍼져 나가기를 기원하였다.[32] 한편, 惠永(1228-1292)은 『白衣觀音禮懺文』에 대해 여러 경론을 인용하여 풀이하고 주석을 붙인 『白衣解』를 남겼다.[33] 그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의 대비주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34] 가범달마 역의 『천수경』 본문을 인용하였다.[35] 또한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體元(?-?)은 『白花道場發願文略解』에서 『백화도량발원문』을 설명하면서 『천수천안경』의 구절을 3번 인용하였다.[36] 또 忠肅王 복위 2년(1344) 東泉寺 善珣 등은 『白花道場發願文』을 간행하며 명복을 비는 한편 모든 이들에게 불법이 흘러들기를 기원하였다.[37]

구체적인 천수관음 신행 사례도 전하고 있다. 光宗 때 활동한 均如(923-973)는 누이인 秀明에게 관음과 보현 두 선지식의 법문과 함께 『神衆經』 및 『천수경』 두 경문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38] 이 기록은 고려 초의 『천수경』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려 초부터 『천수경』의 내용이 전파되었음을 알려준다.

12세기 들어서면 보다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毅宗(1146-1170)대에 작성된 「黃偉妻崔氏墓誌銘」에 따르면 황위의 부인 최씨는 千手眞言을 외웠다고 한다.[39] 1152년(의종 6)에 작성된 「李坦之墓誌銘」에는 이탄지가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은해사에 가게 되었는데, "맑은 마음으로 공양을 갖추어 齋를 설치하고 향을 피워 부처님께 예불드렸고, 승려들에게 공양하기를 마친 후에 물러나 손님방에 편히 앉아서 밤새도록 천수진언을 외우다가 미동 없이 돌아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다.[40]

다(김수연, 2011, 앞의 논문, 96-98면).

32) 정병삼, 2017 「고려후기 불교 조영물의 발원 내용에 나타난 불교신앙의 경향」, 『사학연구』 128, 113면.

33)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청구기호 D 218.762 혜64ㅂ).

34) 이선이, 2006 「백의해의 관음수행관 고찰」, 『불교연구』 24, 2・6면.

35) 禹秦雄, 앞의 논문, 146면. 자세한 내용은 이선이, 위 논문, 17・20면 참조.

36) 정병삼, 2011 앞의 논문, 109면.

37) 정병삼, 2017 앞의 논문, 114면.

38) 「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 『韓國佛教全書』 4.

39) 『黃偉妻崔氏墓誌銘』.

1192년(明宗 22)에 작성된 「金有臣妻李氏墓誌銘」에는 李一娘이라는 여성이 김유신과 혼인한 이후 『小彌陁經』, 『華嚴』, 『普賢品』과 함께 천수다라니를 오래도록 읽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41] 또한 최우가 『大悲神呪陀羅尼神呪經』을 탐독하였다는 기록도 『東國李相國集』에 전한다.[42] 이상의 기록은 당시 천수다라니를 독송하는 일이 널리 행해졌고, 특히 임종 시에 천수다라니를 독송함으로써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에 의한 임종의례가 행해졌던 사실을 말해준다.[43] 또, 천수다라니를 알고 있거나 독송했던 인물들이 승려와 관련된 인물, 관료, 고위 관료의 부인 등 여러 신분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면에서 천수다라니 신앙 수용 계층의 범위가 다양했음을 보여준다.

고려 후기 왕실 차원의 천수관음 관련 법회 개최 사례도 주목된다. 忠烈王 때 圓鑑國師 冲止(1226-1292)는 왕의 행차 시 평안을 기원하면서 4종의 法席을 거행하였는데, 왕실의 안녕을 위해 천수다라니를 암송하는 법회를 개설하였다.[44] 고려 말 恭愍王(1351-1374)은 1365년에 魯國大長公主(?-1365)가 사망한 후 1370년에 공주의 죽음을 슬퍼하며 글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千手道場을 베풀었다.[45] 이는 일반 백성들뿐 아니라 왕실에서도 임종 시 천수다라니 암송 풍습이 있었음을 엿보게 한다.[46]

관련한 신앙행은 천수관음상 조성으로도 자연스럽게 확산되었다. 현존하지는 않으나 복장 기록물을 통해 1322년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는 천수관음금동상이 대표적인데, 복장에 따르면 道人永農 등은 국왕이 장수하고 전쟁이 그치고 풍년이 들며 중생이 이익을 누리기를 기원하며 천수관음상을 조성하였다고 한다.[47] 비슷한 이유에서 그림으로도 그려지기도 했음을 이규보의 「崔相國攘丹兵畫觀音點眼疏」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거란 군사를 물리치기 위해 천수천안관음형상을 그린 것으

---

40) 『李坦之墓誌銘』. 김용선의 번역을 따름(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41) 『金有臣妻李氏墓誌銘』.

42) 『東國李相國集』 卷41, 「崔相國攘丹兵畫觀音點眼疏」.

43) 김정희, 2012 「한국의 千手觀音 信仰과 千手觀音圖」, 『정토학연구』 17, 173면.

44) 『東文選』 112卷, 疏 釋宓菴 「祝大駕消災仁王千手智論四種法席疏」.

45) 『高麗史』 89卷, 列傳2 魯國大長公主條.

46) 김정희, 앞의 논문, 174면.

47) 허흥식, 1986 「14세기의 새로운 佛服藏資料」, 『文化財』 19; 정병삼, 2017 앞의 논문, 105면.

로[48] 그 근거로써 환란이 일어나거나하면 대비상을 조성해 장엄 공양하라는『천수경』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49] 또 이규보는 觀音讚에 차운한 시를 남겼는데, 진양공이 보낸 관음도를 칭송하면서 '千手千眼 그 까닭 헤아릴 수 없네'라고 읊고 있어 천수관음도를 보고 지은 시임을 알 수 있다.[50] 또 1346년 고려 말에 간행된『稼亭集』권6에는 "불상의 시설은…관음대사, 천수천안은 문수, 보현, 미륵, 지장과 더불어 선실에 배치되고…"[51] 라고 하여 금강산 장안사에 천수천안관음보살이 모셔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52]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천수관음상의 형상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사례 중 회화형식으로는 호암미술관 소장의 11면천수관음보살도가 있다.[53] 이 그림은 보타락가산을 배경으로 관음보살과 선재동자가 함께 등장하는데『천수경』,『법화경』,『화엄경』등 여러 경전에 나오는 관음 신앙이 결합된 새로운 도상이다. 이 도상은『別尊雜記』의 기록과 거의 일치한다고 한다.[54] 파리 기메국립동양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철조천수천안관음보살상의 모습을 살펴보면, 11면의 얼굴에 두 손은 합장하고, 나머지 좌우의 손이 각각 20개로서 모두 42개의 손이 있다. 이 형상은 7세기 중엽과 8세기 중엽 번역된『천수경』과『대비심다라니경』의 의궤를 따르고 있으면서도 지물의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5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 11면천수관음상은 합장한 두 손과 머리 위로 올려 화불을 바치고 있는 두 손, 무릎 위에서 선정인을 한 두 손을 제외하면 나머지 다른 손들은 좌우대칭으로 배열하여 각각 지물을 쥐고 광배와 같이 둥글게 표현되어 있는데, 중국 당대의 전형적인 42수 천

48)『東國李相國集』卷41,「崔相國攘丹兵畫觀音點眼疏」.

49)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의 외환을 물리치는 기원으로서 대비주를 설행한 증거이다(정병삼. 1996「고려 후기 관음신앙」,『丹豪文化硏究』1, 용인대 전통문화연구소, 80면; 김수연, 2011 앞의 논문, 104면).

50)『東國李相國集』卷8,「次韻其禪師觀音讚詩」. 김정희, 앞의 논문, 176면.

51)『稼亭集』第6卷,「金剛山長安寺重興碑」. 이상현의 번역을 따름(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52) 김정희, 앞의 논문, 175면.

53) 이숙희, 앞의 책, 54면.

54) 김정희, 앞의 논문, 177면.

55) 이숙희, 앞의 책, 52-53면.

수관음상과 유사하다.[56]

천수관음보살상의 형상이 42수로 표현된 것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자료는『梵書摠持集』이 있다. 특히 1218년(高宗 5)에 惠勤大師가 발원하여 금산사에서 개판하고, 개태사의 仁赫大師가 각판한 민영규본『범서총지집』은 다른 판본에 비해 다라니를 나열한 순서에 있어 특이점이 있다. 후반부에 수록된 121종의 다라니 중 제일 먼저 나오는 40개의 다라니가 관음의 40수 진언인 것이다.[57] 민영규본『범서총지집』의 이러한 구성은 13세기 고려에서 관음의 40수 진언만을 별도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3. 조선 시대『五大眞言』수록 42手 圖像의 특징

조선 시대 들어 처음에는 관음신앙과 관련해서는 대승경전이 주로 간행되었는데, 15세기 후반부터는 다라니류의 경전이 간행되는 변화가 나타난다.[58] 성종 7년(1476) 이후『대비심다라니경』,『불정심다라니경』이 간행되었고,『오대진언』에는 천수관음과 관련한 다라니가 수록되었다. 다라니의 수지와 독송에 따른 여러 가지 공덕 성취에 대한 믿음은 조선시대에까지 이어졌던 것이다.『오대진언』에 수록된 천수관음 관련 다라니는 사십이수진언, 신묘장구대다라니이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천수경』류 경전에서 설하는 가장 기본적인 다라니이다. 또한『오대진언』에서 42수 진언만이 아니라 도상을 함께 수록한 것은 이 진언과 관련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졌음을 엿보게 한다. 고려 시대에 간행된『범서총지집』에서 관음의 40수 진언만을 별도로 수록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은 천수관음의 진언만을 별도로 신행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경향이 강해졌음을 보여준다. 조선 시대 간행된『오대진언』에서 관음의 42개의 수인을 도상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56) 이숙희, 앞의 책, 54면.

57) 김수연, 2016「민영규본『梵書摠持集』의 구조와 특징」,『韓國思想史學』54, 163면. 김수연에 따르면 각각의 다라니 문구는 불공역본과 일치한다.

58) 金秀炫, 2005「朝鮮中後期 觀音經典 刊行 硏究」,『문화사학』24, 139-140면.

수 있을 것이다. 규장각 소장본 중 쌍계사판(奎6749)을 참고하여 『오대진언』의 『천수경』과 관련한 부분의 구성을 살펴보면, ①대비심다라니계청-②42수 진언-③12보살의 명호-④신묘장구대다라니와 같은 순서로 수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쌍계사판, 觀世音菩薩化佛手眞言

이 중 ②42수 진언 기술 방법을 살펴보면, 42개 진언마다 각각 진언의 명칭이 오른 면에 표기되어 있으며, 상단에는 해당 진언의 수인의 도상이 배치되어 있고, 하단에는 해당 진언의 위력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해당 진언을 실담-한글 음역-한자 음역의 순으로 기술 하였다(그림 1 참조). 이 구성은 기본적으로 불공역본을 따른 것인데, 42수진언과 도상을 앞에 배치한 것은 경의 구성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밀교대장 권61의 진언 표기 형식과 유사한 점은 주의를 요한다.

그렇다면 관음의 42개의 손의 모양, 즉 手印을 도상으로 남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오래된 한역본인 지통 역 『천안천비관세음보살다라니신주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세음보살이 천안천비관세음보살의 大神呪를 설하는데, “다라니의 사용 후에는 총체적으로 身印을 포섭할 것”이라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이어 천안천비관세음보살의 總攝身印부터 請千臂觀音菩薩心王印呪까지 25개의 신인을 나열하고 각각의 印을 결하는 법을 설명하였다. 이후 한역된 보리유지역본, 금강지 역본에서 모두 동일한 내용을 전한다. 이처럼 다라니를 왼 이후 수인을 맺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할 일로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오대진언』에서 수록한 수구다라니를 설한『普遍光明淸淨熾盛如意寶印心無能勝大明王大隨求陀羅尼經』에서는 다라니를 지송, 수지, 억념, 서사할 것을 말할 뿐이다.[59] 또 다른 다라니인 불정존승다라니를 설한『最勝佛頂陀羅尼淨除業障呪經』에서는 불정존승다라니를 억념 한다면 정토에 날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이어 다라니를 서사하여 탑 등에 안치할 것을 당부한다.[60] 대불정다라니의 경우『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권7에서 대불정다라니를 제시하고 그 공덕을 설시하는데, 이러한 공덕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다라니의 서사와 수지, 염송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61] 즉『천수경』에서 다라니를 외고 반드시 인을 결할 것을 덧붙이고 그 인을 결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과는 다른 양식이다. 그렇다면『오대진언』수록 다섯 가지 다라니 중 천수관음과 관련해서만 수인 도상을 함께 표현한 이유는 경전상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던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인의 모습을 글로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이 자명한데,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이후 관련 경전이 여러 번 한역되면서 불공역에 이르러서는 수인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관음 신앙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확산되면서 다양한 관음보살상이 그려지고 조성되면서 천수관음보살상의 제작도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천수관음보살의 손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낼지 고민이 이어졌을 것이다. 천수관음에 대한 신앙 활동을 이어나가는 신앙자들도 다라니를 수지하고 독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결인에 대한 욕구가 있었을 것이다. 다라니 독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한자음역, 한글음역 표기를 한 것은 다라니를 매개로 한 신앙 활동의 실용적인 방법을 찾았던 모습이

---

59)『普遍光明淸淨熾盛如意寶印心無能勝大明王大隨求陀羅尼經』T20, 616a03-637b09. 당-송 시기에 걸쳐 수구다라니의 서사에서 수구다라니만다라를 제작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그러나『오대진언』에서는 수구다라니만다라 도상을 첨부하지는 않았다.

60)『佛頂尊勝陀羅尼經』T19, 350a04-351c27.

61)『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第7, T19, 136c16-137c10.

다. 이와 동일한 지향에서 천수관음 수인의 도상을 자세히 표현하게 되었을 것이다. 즉, 42수 진언과 그에 따른 수인의 도상이 제시된 형태를 통해 천수관음신앙의 구체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42수진언과 함께 도상까지 기술한 기록물 중 현전하는 자료를 진언 표기 형식과 도상의 표현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해 보면,[62] 아래 〈표 2〉와 같이 불공역본(①) 1467년판(②), 1484년 원통암판(③), 1485년 왕실발원판(④)[63]과 그 후쇄본들, 18세기 이후 간행되는 畵千手 계통(⑤)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64]

1467년판(②)은 欄外에 도상을 묘사하여 다른 판본들과 형식상 차이가 있다.[65] 원통암판(③)은 다음해인 1485년 간행되는 왕실발원판(④)과 유사해 보이지만 광배 및 운문의 세부 표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

---

62) 1973년 충남 서산 문수사 금동아미타여래 불복장에서 출토된 유물 중 절첩 형태의 '『오대진언』'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강인구, 1975「서산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불복유물」, 『미술자료』 18). 강인구의 보고에 따르면 문수사 복장유물의 간행 연대는 1096-1346년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한다면 현전하는 42수 진언+도상의 형식의 자료로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특히 문수사 복장유물의 도상은 1485년 인수대비 왕실발원판의 것과 같은 계통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선시대 발간된 『오대진언』 중 관음 42수진언+도상 형식의 원류가 된다. 그런데 이 유물은 '『오대진언』'이라 명명되었으나 42수진언의 일부로 생각되는 5개의 수인의 도상과 진언이 남겨진 것이다. 따라서 5개의 진언의 묶음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대진언』'이라고 하기에는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金芳蔚, 앞의 논문, 84면). 이 자료가 온전히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고려 시대 간행물인가의 여부는 조금 더 섬세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문수사 복장물을 제외하고 분류, 검토하였다.

63) 1484년 간행본도 刊記에 따르면 貴人 湛月軒 朴氏, 德源君 曙, 貞懿公主, 昌原君, 永嘉府夫人 申氏 등이 시주하였기 때문에(江田俊雄, 1977, 『朝鮮佛教史の研究』, 日本國書刊行會, 330면) 왕실발원판이라 할 수 있겠으나 통상 1485년 인수대비의 발원으로 간행된 『오대진언』을 '왕실발원판'이라 칭한다.

64) 〈표 2〉의 철암판(청구번호 一簑古貴 294.33-B871d, 표제명 대타경), 『觀世音菩薩靈驗略抄』(청구번호 古1730-41)와 『畵千手』(청구번호 古1730-51)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중앙도서관 소장본이며, 쌍계사판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이다. 철굴판(청구번호 古1788-20-1)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다. 각 이미지는 해당 기관의 저작권 사용 기준에 준하여 기재하였다. 상원사본과 기림사본의 이미지는 문화재청 제공 이미지 사용 기준에 준하여 기재하였다.

65) 江田俊雄, 위의 책, 331면 참조.

〈표 2〉 化佛手眞言 手印의 圖像 비교

①『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悲心陀羅尼』	④-1. 상원사-왕실발원판(1485)	⑤-1. 『관세음보살영험약초』
②成化12年(1467)	④-2. 철암판(1550)	⑤-2. 『화천수』
③기림사-원통암판(1484)	④-3. 철굴판	
	④-4. 쌍계사판	

왕실발원판과 왕실발원판을 저본으로 하는 계통인 철암판·철굴판·쌍계사판과 비교해보면 왕실발원판이 가장 우수하여 그 인쇄 수준과 손톱의 유무, 광배와 운문 표현법에 조금씩 차이가 확인되기는 하지만 모두 왕실발원판을 저본으로 한 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세음보살영험약초』와 『화천수』는 같은 계통인데(⑤), 앞의 ④계통과 비교 했을 때 광배의 안쪽을 빗금으로 표현한 점, 부처의 옷깃 표현에서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 또 손가락의 지문 표현 및 운문 표현에서 구름이 갈라지는 부분이 둔탁하고 뭉쳐 있게 표현되어 있는 등 세부 표현에서도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④와 ⑤는 왕실발원판 계통과는 다른 판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467년판부터 『화천수』 계통까지 전체적인 도상은 무배경에 운문이 피어오르는 사이에서 뻗어 나온 천안 중 하나가 묘사된 오른손으로 부처상을 받치고 있으며, 광배를 두광과 신광 뿐 아니라 거신광까지 묘사한 후 다시 원형으로 둘러싸이게 표현한 형식은 동일한 도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⑤계통은 앞선 경우 배 모양의 舟形 광배와 달리 불꽃을 표현한 寶珠形 광배를 의도한 것 같으나 큰 범위 내에서 동일한 도상을 기반으로 변형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조선 시대 간행물에 수록된 42수인의 도상은 불공역본의 도상과(①) 다르며, 〈표 3〉에서의 1601년 명대 작성된 것과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42수 진언은 경전에서 전거를 찾을 수 없으며 언제 성립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가범달마역본에서는 40수를, 불공역본에서는 41수를 가진 존재로서 묘사되고 있는데, 『오대진언』의 42수 진언 사경과 판본에는 여의주수부터 설하는 『천수경』의 40수 진언 끝에 불공역본에서 부가된 '甘露手'가 41수, 새로운 '總攝千譬手' 진언이 42수 진언으로 설해져 있다. 새롭게 삽입된 총섭천비수는 『천안천비관세음보살다라니신주경』과 『천수천안관세음보살모다라니신경』에 나오는 25印 중 다섯 번째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천비총섭인'과 관련 있다.[66] 이에 대해 『반야경』 이후 이어진 42자문에 대한 사상이 바탕이 되어 가범달마역과 불공역이 혼합되면서 관음 42수

66) 黃金順, 2016「韓國 千手觀音圖에 보이는 千手觀音 認識과 圖像의 變容」, 『미술사연구』 30, 24면.

로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67] 『반야경』, 『법화경』 등이 오랜 시기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경전으로서 인식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천수경에 전거 한 40수를 기반으로 여러 경설을 융합하며 변화하고 성립되는 중국 천수관음상 大手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68]

하지만 『오대진언』 수록 도상이 어떤 도상을 전거로 삼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학조의 발문에 따라 중국의 영향을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왕실발원판에 전하는 발문에서 학조는 '唐本'을 구해왔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台北 국립고궁박물원에 소장 중인 명대 금니 사경본 『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慈心陀羅尼』와 1601년 중간된 판각본 『大悲心陀羅尼經』 등에서 이 무렵 중국에서 42수 진언이 유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69] 그러나 42수 진언 도상의 양자 간 유사성이 낮다는 점과, 앞서 제시한 명대 판본은 17세기 판본이므로 1484년 원통암판보다 후대 자료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당시의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교류하고 있던 나라의 42수진언의 도상의 예를 찾아서 검토해볼 필요가 여전히 남아있다.

명과 조선 간 문화 교류의 측면에서 조선은 명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오대진언』이 간행되던 시기에 명의 황제가 불교를 숭상하였다는 기록을 보면 공식적인 방법으로 불교와 관련된 문화 교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왕실 차원에서의 수요 가능성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명나라는 太祖(洪武帝, 1368-1398)부터 武宗(正德帝, 1505-1521) 시기 티베트 불교에 대해 호의적이었으며, 불사가 성행하고 불교의례가 정착되어 민간에 보편화되었다.[70] 성종이 즉위한 직후 중국에서 불경과 불상을 들여오려 명하면서 이를 옳지 못한 일이라 하자 명에서도 불교를 숭상하니 방해될 일이 아니라 한 점은 이러한 모습을 알려준다.[71]

---

67) 김방울, 앞의 논문, 80-82면.

68) 黃金順, 앞의 논문, 24면.

69) 黃金順, 앞의 논문, 24면.

70) 김경미, 2013 「조선 전반기 티베트계 명양식 불교미술의 영향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4면.

특히 성종의 생모 인수대비의 아버지인 한확(韓確, 1400-1456)의 누이 두 명이 명 황제의 후궁이었던 점은 명과 조선의 관계가 공식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5대 宣宗(宣德帝, 1425-1435)의 후궁이 된 恭愼夫人 韓氏(1410-1483)는 명 황실에서 위상이 높았다.[72] 이 때문에 한확 집안의 인물들은 명의 사신으로 자주 파견되었는데, 한확의 아들 한치형이나 한한(韓僩, ?-?)이 중국에서 돌아왔을 때 명 황실의 불교 숭상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성종 9년에 한치형은 "황제가 도교와 불교를 매우 부지런히 신봉합니다. 신이 처음 황제의 도읍에 들어갔을 때 황제가 바야흐로 齋戒 중이었습니다."[73]고 하였고, 성종 13년에 한한은 1482년에 중국에서 돌아왔을 때 "황제가 도교와 불교를 몹시 좋아하여 법회를 베풀면 僧衣를 입고, 도량을 베풀면 道衣를 입으면서 혹 열흘 동안을 파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74] 특히 仁孝徐皇后의 예는 명 황실의 관음 신앙을 잘 보여준다.[75]

이러한 맥락에서 『오대진언』의 42수 수인의 도상과 관련하여 명대 불교 판화 자료로서 아래와 같이 42수 진언과 같은 도상의 판본이 확인되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도상들은 공통적으로 42수 진언의 명칭과 함께 수인의 도상과 진언의 한자음을 표기하고 있는 형식이다. 따라서 『오대진언』 수록 42수 진언의 기재 형식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동시기 명에서도 42수 수인의 도상에 대한 수요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도상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

71) 『成宗實錄』 9권, 成宗 2년 1월 20일 계사 1번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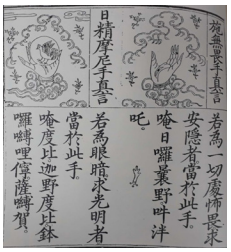
72) 한희숙, 2017 『인수대비』, 솔과학.

73) 『成宗實錄』 99권, 成宗 9년 12월 21일 3번째 기사.

74) 『成宗實錄』 149권, 成宗 13년 12월 24일 2번째 기사.

75) 『卍新纂大日本續藏經』 第88册, 善女人傳 明仁孝徐皇后. "常夢觀世音菩薩授佛說第一希有功德經" 한편, 그가 내훈을 편찬했던 모습은 그 체제는 다르지만(김훈식, 2011 「15세기 韓・中 『內訓』의 여성윤리」, 『역사와경계』 79) 인수대비의 내훈반포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표 3〉 42手 手印 관련 明代 자료

明 萬曆(1573-1619) 『신편중국판화도록』6권	萬曆29年(1601) 『신편중국판화도록』6권	台北국립고궁박물원 소장	明 天啓(1621-1627) 『중국판화전집』 1
			

1485년 왕실발원판 발간 이후 이것을 저본으로 한 『오대진언』류 서적의 간행이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42수 진언의 도상은 탈락시키고 진언만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42수 수인의 도상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18세기 이후 빈번히 개판되는 『畵千手』 계통의 간행물에서도 42수 진언 도상은 꾸준히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천수』는 중국에서는 大悲出相圖라고 하며 송·원 시대에 시작해 명·청 시대에 매우 성행했다.[76] 우리나라에서는 18세기 들어와 처음 간행되는데,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상단에 手印이나 관세음보살, 마명보살, 귀신, 사대천왕, 노사나불 등 각 불상과 보살 등의 여러 모습을 도상화 한 것이다.[77] 즉, 『화천수』는 신묘장구대다라니와 그에 따른 도상을 소개한 것이다. 그런데 신묘장구대다라니와 도상만이 아니라 이어서 42수 진언과 도상을 수록한 것도 『화천수』라는 표제로서 간행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화천수류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진언의 도상이 표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와 함께 진언의 실담자도 달라진다. 이러한 변

76) 陳明華, 앞의 논문, 149면.

77) 『畵千手』의 초간본은 숙종42년(1716) 김해 감로사에서 간행된 것으로 여러 소장처에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1777년 만연사판 『諸眞言集』의 부록 부분에 있는 판본까지 총 7종이 확인되며 현전 판본 모두 18세기에 간행되었다(禹秦雄, 2012 「조선시대 간행 『畵千手』 板本考」, 『古印刷文化』 19, 147면).

화는 42수 진언을 매개로 한 신앙행이 더욱 다양해졌음을 알려준다.

한편 규장각 소장 『오대진언』과 『화천수』에 수록된 신묘장구대다라니의 한자 음역 표기가 불공역본의 것이 아니라는 점은 천수다라니 신앙의 전래와 변화의 측면에서 주목된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불공역'이라고 명기하였으나 실제 한자 표기를 살펴보면 불공역본의 것이 아닌, 방산석경에 새겨진 것으로 慈賢이 한역한 『大悲心陀羅尼』의 한자 표기와 일치하고 있다.[78] 이해를 돕기 위해 불공역본과 자현역본의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의 한자 음역 표기를 각각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不空, 『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悲心陀羅尼』
南無喝囉怛娜哆囉夜唧 南無阿唎唧 婆盧羯帝…南無阿唎唧 婆盧吉帝 爍皤囉夜 娑婆訶 悉殿都 漫哆羅 跋馱耶 娑婆訶

(b) 慈賢, 『大悲心陀羅尼』
曩謨囉怛曩怛囉夜野 曩莫阿哩也 嚩路枳帝…曩莫阿哩也 嚩路枳帝 濕嚩囉野娑嚩賀 悉鈿都銘滿怛囉鉢馱[寧*頁]娑嚩賀

(c) 『五大眞言』[79]
曩謨囉怛曩怛囉夜野 曩莫啊𠰁嚩路枳諦…曩莫啊𠰁嚩路枳諦濕嚩囉野娑嚩賀

(d) 『畵千手』[80]
曩謨囉怛曩怛囉夜野…曩莫啊哩也嚩路枳諦濕濕嚩囉野娑嚩賀

위의 예를 통해 『오대진언』과 『화천수』의 신묘장구대다라니의 한자음역표기는 불공역이 아닌, 방산석경을 통해 전하는 자현 역의 『대비심다라니』의 경우를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다라니의 한자 음역 표기를 방산석경의 예를 따른 경우는 신묘장구대다라니만이 아니다. 고려 시대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서각 소장 「대불정다라니」는 음역 표기에서 사용한 한자가 방산석경에 새겨져 전하는 『釋敎最上乘秘密藏陁羅尼集』에 수록된 불공역의 대불정다라니 표기법과 상당 부

78) 『大悲心陀羅尼』 F27n1064.

79) 쌍계사판(규장각소장, 청구번호 奎6749).

80) 규장각소장(청구번호 古1730-5).

분 일치한다. 또한『오대진언』에 수록된 대불정다라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81]

그렇다면 신묘장구대다라니와 대불정다라니의 예를 통해 고려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다라니 신앙은 요나라의 다라니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82]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이 조선 시대『오대진언』간행 시까지 이어졌던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 현재 자현의 번역과 관련된 경전, 다라니, 의궤류는 10종이 있는데, 이 중 의궤류와『妙吉祥平等秘密最上觀門大敎王經』을 제외한 번역본은 한자음역의 다라니만 실려 있다. 이는 자현이 다라니만을 번역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83] 대불정다라니의 예에서와 같이 요나라와의 불교 교류 속에서 다라니 음역을 새롭게 하였던 자현의 번역본 또는 번역본에 의거한 신앙 양상이 고려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84] 이와 같은 모습은『오대진언』을 간행하게 되었던 배경은 조선시대에만 국한시켜 이해할 수 없으며, 해당 다라니들의 역사적 전통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

81) 옥나영, 2018「고려시대 大佛頂陀羅尼 신앙과 石幢 조성의 의미」,『韓國思想史學』60, 12-15면. 장서각소장본은 맨 앞에 계청문을 실은 후, 대불정다라니의 범어를 표기하고 그 다음 줄에는 해당 범어의 발음을 대조하여 한자로 표기한 형태이다. 장서각소장본에서 사용한 한자는 방산석경에 새겨져 전하는『석교최상승비밀장다라니집』에 수록된 487구 및 같은 방산석경의 불공역본 481구의 대불정다라니의 표기법과 상당수 일치한다.

82) 요나라와 고려간 불교의 교류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의 연구가 참조된다. 김영미, 2002「1세기 후반-12세기 초 고려・요 외교관계와 불경 교류」,『역사와현실』43; 김영미, 2009「高麗와 遼의 불교 교류:『釋摩訶衍論』을 중심으로」,『韓國思想史學』33; 장남원 외, 2011『고려와 북방문화』, 養士齋; 엄기표, 2019「고려시대 遼 연호 借用 文物의 현황과 특징」,『불교미술사학』28.

83) 藤原崇人 지음, 김영미 외 옮김, 2020『거란 불교사 연구』, 씨아이알, 232-243면.

84) 遼의 불교와 관련된 유적이나 유물을 살펴보면 불교문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비록 정치, 군사적으로는 긴장의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불교문화 측면에서는 활발한 교류를 가졌다(남권희, 2013「契丹과 高麗의 佛敎文獻 交流」,『書誌學硏究』56, 7면).

4. 맺음말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다라니를 매개로 한 신앙 활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신분 계층이 공유하게 되면서 다양 다종하게 확산되었다.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러서도 그 전통은 이어졌다. 15세기 조선 왕실에서는 다라니의 誦習이 쉽지 않기에 민중이 그 믿음이 있어도 신앙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다라니의 발음을 한자와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보다 용이한 방법을『오대진언』간행을 통해 제시하였다. 따라서『오대진언』의 간행은 다라니 신앙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 본 글에서는 이 점에 착목하여『오대진언』에 수록된 다라니들의 신앙의 특징을 조선 시대에 국한하여 검토하기보다는 개별 다라니들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 고대·고려를 거치는 동안의 확산과 변모 양상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오대진언』수록 다라니들 중 천수관음 신앙과 관련한 42수진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중심으로 해당 사항을 살펴보았다.

천수관음신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당대부터 명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도 흥륭하였고, 이러한 분위기는 신라 시대 사례를 통해 비슷하게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에 들어서는 천수관음 신앙의 현세구복적인 면에 왕실부터 일반 관료와 여성, 승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계층에서 주목하였다. 이에 경전이 간행되고,『천수경』과 천수다라니를 독송하고, 천수관음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고려시대 후기 요나라의 다라니 신앙의 경향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이러한 천수관음의 다라니에 대한 신앙의 전통은 그대로 이어졌고, 왕실에서 간행된『오대진언』에도 여러 다라니들과 함께 수록되었다. 특히『오대진언』에는 관음의 42수 진언뿐만 아니라 42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의 도상이 함께 수록되었다. 뿐만 아니라 18세기 이후에도『화천수』등의 간행물에 조금 변형된 도상의 42수 진언의 도상이 수록되고 있어서 그 수요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명나라에서도 42수 수인의 도상을 간행하였다.

이처럼 42수의 구체적인 형상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던 것은『천수경』에서 다라니 독송뿐만 아니라 각각의 인을 결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천수관음신앙이 전개되면서 천수관음상이 조성됨에 따라 각각의 수인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42수 수인 도상은 천수관음과 다라니에 대한 다채로운 신앙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려 준다.

본 연구는『오대진언』의 여러 다라니들의 개별적 검토의 필요성에서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개별 다라니들의 연구를 통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오대진언』 간행의 사상사적 의미를 검토하는 작업은 추후 과제로 남겨 둔다.

논문투고일(2020. 5. 16), 심사일(2020. 5. 26), 게재확정일(2020. 6. 11)

참고문헌

1. 자료

『高麗史』.
『金有臣妻李氏墓誌銘』.
『東國李相國集』.
『東文選』.
『三國遺事』.
『成宗實錄』.
『李坦之墓誌銘』.
『黃偉妻崔氏墓誌銘』.
『觀世音菩薩靈驗略抄』.
『五大眞言』.
『畵千手』.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普遍光明淸淨熾盛如意寶印心無能勝大明王大隨求陀羅尼經』.
『佛頂尊勝陀羅尼經』.
『諸阿闍梨眞言密敎部類總錄』.
『千眼千臂觀世音菩薩陀羅尼神呪經』.
『千手千眼觀世音菩薩治病合藥經』.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
『千手千眼觀世音菩薩姥陀羅尼身經』.
『金剛頂瑜伽千手千眼觀自在菩薩修行儀軌經』.
『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悲心陀羅尼』.
『大悲心陀羅尼修行念誦略儀』.
『攝無礙大悲心大陀羅尼經計一法中出無量義南方滿願補陀落海會五部諸尊等弘誓力方位及威儀形色執持三摩耶幖幟曼荼羅儀軌』.
『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呪本』.
『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身呪本』.
『千光眼觀自在菩薩祕密法經』.
『韓國佛敎全書』.

2. 연구논저

강인구, 1975「서산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불복유물」,『미술자료』18.
김경미, 2013「조선 전반기 티베트계 명양식 불교미술의 영향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동림, 2019「한국불교 주력신앙의 수용사 고찰-대비주(大悲呪)의 주송을 중심으로-」,『동아시아불교문화』38.
김무봉, 2011「『영험약초언해(靈驗略抄諺解)』 연구」,『한국어문학연구』57.
金芳蔚, 2016「朝鮮時代 觀音信仰 關聯 佛書 刊行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김수아, 2016「왕실발원판『오대진언집』과 관음신앙의 형성」,『문학과 종교』21-1.
김수연, 2011「高麗時代 密敎史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6「민영규본『梵書摠持集』의 구조와 특징」,『韓國思想史學』54.
金秀炫, 2005「朝鮮中後期 觀音經典 刊行 硏究」,『문화사학』24.
김영미, 2002「1세기 후반~12세기 초 고려·요 외교관계와 불경 교류」,『역사와현실』43.
_____, 2009「高麗와 遼의 불교 교류 :『釋摩訶衍論』을 중심으로」,『韓國思想史學』33.
김정희, 2012「한국의 千手觀音 信仰과 千手觀音圖」,『정토학연구』17.
김호성, 2006『천수경의 새로운 연구』, 民族社.
김훈식, 2011「15세기 韓·中『內訓』의 여성윤리」,『역사와경계』79.
남권희, 2013「契丹과 高麗의 佛敎文獻 交流」,『書誌學硏究』56.
_____, 2015「한국의 陀羅尼 간행과 유통에 대한 서지적 연구」,『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논문집』8.
南東信, 1992「慈藏의 佛敎思想과 佛敎治國策」,『韓國史硏究』76.
남희숙, 2004「朝鮮後期 佛書刊行 硏究 : 眞言集과 佛敎儀式集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藤原崇人 지음, 김영미 외 옮김, 2020『거란 불교사 연구』, 씨아이알.
박광헌, 2014「고려본 밀교재장 권61에 관한 서지적 연구」,『書誌學硏究』58.
엄기표, 2019「고려시대 遼 연호 借用 文物의 현황과 특징」,『불교미술사학』28.
옥나영, 2018「고려시대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 신앙과 석당(石幢) 조성의 의미」,『韓國思想史學』60.
우진웅, 2011「韓國 密敎經典의 版畵本에 관한 硏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禹秦雄, 2012「조선시대 간행『畵千手』板本考」」,『古印刷文化』19.
이선이, 2006「백의해의 관음수행관 고찰」,『불교연구』24.
이숙희, 2009『통일신라시대 밀교계 불교조각 연구』, 학연문화사.

임기영, 2014「고려시대 밀교 문헌의 간행 및 특징」,『書誌學硏究』58.
정병삼, 1982「統一新羅 觀音信仰」,『韓國史論』8.
_____, 1996「고려 후기 관음신앙」,『丹豪文化硏究』1.
_____, 2011「全文『白花道場發願文略解』와 체원의 관음신앙」,『佛敎硏究』4
_____, 2017「고려후기 불교 조영물의 발원 내용에 나타난 불교신앙의 경향」,『사학연구』128.
장남원 외, 2011『고려와 북방문화』, 養士齋.
正 覺, 1996『천수경 연구』, 운주사.
鄭泰爀, 1988『正統佛敎』, 經書院.
陳明華, 2010「高麗時代 觀音信仰과 佛畫의 圖像 硏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희숙, 2017『인수대비』, 솔과학.
黃金順, 2016「韓國 千手觀音圖에 보이는 千手觀音 認識과 圖像의 變容」,『미술사연구』30.
허흥식, 1986「14세기의 새로운 佛服藏資料」,『文化財』19.

江田俊雄, 1977『朝鮮佛敎史の硏究』, 日本國書刊行會.
國立故宮博物院編輯委員會 編輯, 2000『觀音特展』,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藤原崇人 지음, 김영미 외 옮김, 2020『거란 불교사 연구』, 씨아이알
周心慧 主編, 2000『新編中國版畫史圖彔』, 北京: 學苑出版社.
中國版畫全集編輯委員會編, 2011『中國版畫全集』, 北京: 紫禁城出版社.

3. 웹사이트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대정신수대장경 텍스트데이터베이스 https://21dzk.l.u-tokyo.ac.jp/SAT/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Abstract

The Background of the Faith on『The Five Mantras Anthology 五大眞言』Nīlakaṇṭha Dhāraṇī and the Meaning of 42 Hands Mudras Icons

Ok, Na Young *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harani in『The Five Mantras Anthology(五大眞言)』should not be limited to those of the Joseon Dynasty, but should be reviewed in advance during the ancient and Goryeo periods. From this point of view, I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 dharanis which is related to the Sahasra bhuja-Sahasranetra Avalokitesvara Bodhisattva Faith, among the Dharanis included in『The Five Mantras Anthology』, focusing on the collections of Gyujanggak. In particular, I analyze the changes and meanings of 42 Hands mudras included with the icons.

Since the 7th century,『Sahasra-bhuja Avalokiteśvara Sutras 千手經』has been translated from the Tang Dynasty, and the Sahasra bhuja-Sahasranetra Avalokitesvara Bodhisattva faith was introduced to Silla. Even in the Goryeo Dynasty, the publication of the scriptures continued, and related religious activities continued. Religious activities through the dharani of Sahasra bhuja-Sahasranetra Avalokitesvara Bodhisattva have gone through various statuses.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the transliteration of darani was influenced by Liao Dynasty. The tradition of Sahasra bhuja-Sahasranetra Avalokitesvara Bodhisattva and Dharani continued during the Joseon Dynasty. So it is included with the various dharani that make up『The Five Mantras Anthology』. In『The Five Mantras Anthology』, the pronunciation is written in classical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 to make it easier for the reciting of dharani. The Chinese characters used show the tendency

* Senior Researcher, Kyujanggak Institi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be influenced by Liao Dynasty. Thus, the tradition of the Goryeo Dynasty is inherited. It also contains 42 Hands mudras icons. This is because the necessity of icon as well as reciting of Dharani. 『The Five Mantras Anthology』 was publish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demand for the 42 Hands mudras's icons continued.

Key words : The Five Mantras Anthology, Sahasra bhuja-Sahasranetra Avalokitesvara Bodhisattva, 42 Hands mudras, Nīlakaṇṭha Dhāraṇī, Faith of Dharani, Esoteric Buddhist